

독서운동의 허와 실

도서관, 독서운동의 메카가 되어야 한다

박영숙_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관장

문구점 앞을 지나다 커다란 글씨로 써 붙인 안내문을 보았다. '○○초등학교 독서경시대회용 책 입수'. 어처구니가 없다. 학교 앞 문구점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장난감, 문구류, 온갖 준비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그래도 주인아저씨는 뭐든 금방 척척 찾아준다. 웬만큼 머리가 좋지 않고서는 문구점을 하기 어렵겠다.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가져오라는 준비물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문구점에선 학년별, 단원별 교과과정까지 다 꿰고 있는 듯하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안내문들은 '없는 게 없다'는 말을 하고 싶은 듯 보인다. 그렇지만 책까지, 독서경시대회용으로 묶어서 수업준비물처럼 팔다니! 서글프기 짝이 없다. 아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

논술에 이어 독서활동기록까지 입시에 반영한다는 정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독서지도'로 열병을 앓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도 학교나 독서교실에서 받은 목록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목록에 있는 책을 빌리기도 어렵다.

독서의욕 고취, 자율적 학습능력 신장. 독서경시대회나 독후감쓰기 행사에 늘 따라붙는 명분이다. 그러나 참가자들 반응은 달라 보인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권밖에 못 구했어요. 어떡하죠?" 목록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른다. 시험과 다를 바 없다. 예상문제까지(!) 나돈다.

독서경시대회 예상문제 나도는 현실

책은 넓은 세상으로 열린 문이다.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즐거운 휴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책 읽는 즐거움을 알기도 전에 숙제나 시험이 되어버린다면 평생 책을 가까이하면서 삶을 꾸릴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가

'학교 다니면서 책에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학교를 떠난 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그 이유를 잘 아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책읽기라는 명예를 씌우고 있다. 참으로 아이들이 책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책 읽을 환경도 만들어놓지 않고 기술적인 독해능력 교육에만 매달리면 결과는 뻔하다. 사교육시장만 키워놓을 것이다. 몇 달 속성(!) 교육으로 독서지도 자격증을 얻는다. 도대체 몇 달 또는 일 년 정도 훈련을 받아서 얼마나 책을 잘 알게 될까? 또 그런 사람에게 아이들 앞날이 달린 '책읽기'를 맡긴다. 얼마나 용감무쌍한 결정인가.

민간단체나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하는 독서운동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선정도서'라는 이름으로 뿌려지는 목록은 누가 어떻게 고른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어떻게 스스로 책을 선택할 권리는 사라지고 만다. 날마다 다함께 조용히 책을 읽어야 하는 아침 독서를 아이들은 '아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자는 야자(야간자율학습)처럼 만든 말이다. 책을 읽고 결과물을 내면 등수를 매기는 독후활동행사에는 아이들이 '동원' 된다.

어른들이 책을 손에 쥐길... '책 읽는 환경' 조성이 중요

프랑스 작가 다니엘 페나크는 《소설처럼》에서 독서 권리 열 개를 꼽았다. 그 첫째가 '책을 읽지 않을 권리'로 시작한다. 사람마다 책 읽는 이유는 다 다르다.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책을 읽고 싶은 때와 장소도 나뉘어 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 읽으며 저마다 책 읽는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필요하다. 건너뛰며 읽을 권리,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다시 읽을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책은 읽는 것이지 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길 바란다

고 사랑을 시킬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읽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길 바라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먼저 '책 읽는 환경'을 만들고 공들여 만든 좋은 책들로 가득 채워야 한다. 읽고 싶은 책을 쉬 만날 수 있고 책과 친해질 기회가 많아야 한다. 아이들만 붙잡고 독서 캠페인을 벌일 게 아니라 어른들이 책을 손에 쥐어야 한다. 읽으라고 독촉하며 읽는 법을 가르칠 게 아니다. 먼저 읽고, 읽는 것이 문화가 되어 아이들 몸 속에 저절로 스며들어야 한다.

도서관, 독서운동의 중심... '독서실' 아닌 제 기능 회복해야

책 읽는 환경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쉽고 편안하게 찾아갈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공공도서관이 채 500개가 안 된다. 다행히 해마다 도서관이 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도서관만 만든다고 독서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도서관이 제몫을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도서관마저 독서운동과 독서지도를 혼동하는 예가 많다. 독서왕 뽑기나 독후감쓰기가 공공도서관이 벌이는 단골행사다. 동화구연, 글쓰기, NIE 같은 독서교실도 열린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에 매달리다 보면 도서관 본래 역할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도서관의 독서운동은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일,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자리에 꽂아두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책이 눈에 잘 띄도록 전시하고 책읽기가 즐거워지도록 편안하면서도 흥미를 돋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반납규정을 마련하고 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마련하고 지은이를 초대해 독자와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 수 있다. 다양한 독서모임이 활동할 수 있게 자리를 내주고 자료도 지원해야 한다. 하나같이 많은 노력이 들지만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보긴 힘든 일이다. 그래서 더 어렵다. 공공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서관이 독서운동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누구든 필요한 자료 만나게 해주는 '도서관 천사'로 기능

누구나 차별 없이 지식, 정보, 문화에 접근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게 공공도서관 이념이다. 독서운동은 이런 도서관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노력이다. 어디서나 손만 뻗으면 보고 싶은 책을 만날 수 있고, 책과 더불어 소통하며 토론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개개인 삶만이 아니라 지역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도서관 서가를 정리하다가 이 책들이 어떤 순간 누구와 만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설렌다. 오마이뉴스에서 본 도서관 천사 이야기가 떠오른다. 도서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뒤적이다 누가 준비해 두기라도 한 듯 마침 꼭 필요했던 자료를 만날 때가 있다. 무릎을 치며 책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절로 느끼게 된다.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도서관 천사라고 부른다. 누구든 한 번이라도 도서관 천사를 만

날 가능성을 곳곳에 심어 놓는 것. 그게 도서관이 해야 할 독서운동 아닐까.

사서 역할 막중...전문성 지닌 사서 양성 시급

도서관에 천사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사서다. 사서는 책과 사람의 만남을 돕는다. 사서가 없다고 탓하거나 사서 개인의 의지와 노력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사서를 길러내야 한다. 사서의 전문성이 어려운 기호를 사용해 자료 DB를 만드는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 자료를 알고 이용자를 알아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사서가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이 중요한 업무다. 꾸준히 자료를 살피고 이용자와 소통할 시간과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도서관이 독서실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도서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야 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동경을 찾아가 30년간 어린이문화와 도서관운동에 매달려온 분을 만났다. 히로세 츠네키. 꼬박 5시간에 걸쳐 일본 도서관과 독서운동 흐름을 듣고 왔다. 인터뷰를 마치며 일본 독서운동 과제가 뭘까 물었을 때 그녀는 한마디로 답했다. "독서에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지요." **▶▶▶**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학교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과 독서교육 활성화에 주력하기 위해 구성된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공동대표 김용택)는 2003년 9월 말 사서 교사,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출판인, 교육위원, 학부모 등을 주축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연대단체로 출범했다. 이 단체는 학교도서관 공간확보와 도서관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전개하고 있고,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활한 정보공유 및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아침 수업 시작 전 펼치는 '아침 10분 독서운동'으로 책읽기를 습관화하도록 만들자는 운동이 많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침독서운동 정보는 어린이도서관연구소 카페에서 얻을 수 있다.

학교도서관 문화운동 네트워크 www.hakdo.net
어린이도서관연구소 <http://cafe.daum.net/morningreading>